‘활구법어’ 살림살이 든든한 밑천

학림사 오등선원 하안거 결제

이른 봄 춘설이 다녀간 가지 끝에서 눈을 뜬 잎들이 어느새 산과 들을 푸르게 물들였다. 시절인연을 따라 잎들이 피고 지듯 수행의 시계도 멈춤이 없다. 오히려 그 멈춤 없는 시간에 채찍을 가해 간절한 구도심을 불태우려는 납자와 재가불자들이 한 도량에서 하안거에 들었다.

계룡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한 학림사 오등선원의 하안거 결제 풍경은 꽃이 피고 잎이 자라듯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보름 법회를 겸해 열린 결제법회는 정갈하고 엄숙했다. 방부를 들인 스님 10여명과 재가불자 30여명이 발소리마저 조심하며 법당으로 들어서면서 법회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결제법회의 하이라이트는 조실 스님의 법어. 촌각을 다투어 자성을 내증하라는 노파심절로 수행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활구법어가 한 철 살림살이의 든든한 밑천이 되는 것이다. 열어젖힌 문 밖에서는 계룡산의 푸른 정기가 들어오고 법좌에 오른 조실 대원 스님의 입에서는 각고정진으로 일대사를 해결하라는 독려의 법문이 쏟아졌다.

정오에 법회가 끝나자 대중들의 눈빛이 달랐다. 스님들은 오등선원에서 재가자들은 시민선방에서 7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 참선과 포행, 소참법문 등으로 짜여진 일과에 따라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정진에 들어갔다.

공주/글=임연태 기자 · 사진=고영배기자

학림사 오등선원 결제법회.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결제 법어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시고 말씀하기를

아시겠습니까?

즉하(卽下)에 알아 얻었다고 할지라도 들여우(野狐)의 정(精)을 면치 못함이요 만약에 알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며, 또 알고 알지 못함을 총히 모두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은 얻고 반은 얻지 못한 것이니 설사 여기에서 한 물건도 없다고 할지라도 옳지 못함이라. 그러면 필경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조금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서 한번 치고 이르시되

여인두상호일월(女人頭上壺日月)
농부확두기진풍(農夫鑊頭起塵風)이로다.

여인의 머리 위 유리 항아리의 해와 달이요
농부의 괭이 머리에는 진풍을 일으킴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중대한 일은 곧 모든 중생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수행 끝에 고통을 해결하시고 49년 동안 중생에게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역대의 조사스님도 역시 고통을 없애고 최고의 깨달음의 열반적정락(涅槃寂靜樂)을 직설(直說)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업적을 남기신 부처님과 조사스님을 한마디로 평가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덕산(德山) 스님이라는 분인데 덕산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속에 있어서는 부처님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음이라. 달마는 이 늙은 비린내 나는 사람이요, 십지보살은 똥망태기를 짊어진 놈이로다.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은 파계한 범부요, 보리열반은 당나귀 매는 말뚝이로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팔만사천의 법문은 귀신의 몸에 난 종기 고름을 닦아낸 휴지조각이요, 사과삼현과 초심십지는 옛무덤을 지키는 귀신이니 자기를 구하여 얻을 수 없음이로다. 부처님도 또한 늙은 똥막대기니라.”

여기에 대하여 운문언(雲門偃)이라는 선사가 “부처를 찬양하고 조사를 칭찬한 것은 덕산 노인이라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장산원(蔣山元)이라는 스님이 상당(上堂)하여 “덕산 노화상이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고, 최상승의 법을 비방했으니 바로 혀를 빼서 밭을 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다. 설사 삼세제불이라도 또한 능히 이 사람은 지옥을 면하게 하지 못함이니 도리어 저 덕산 노인을 구해낼 자가 대중 가운데 있느냐? 있은 즉은 그대 신통에 맡길 것이요 없을진댄 천봉(天峰)이 한 개의 눈도 귀도 코도 없는 놈으로 하여금 또한 저의 성명을 구해 갈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장자를 내리치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한 분은 덕산 스님이 불조를 칭찬했다고 했고 한 스님은 말하기를 덕산 스님이 죄를 지어서 발설지옥에 들어갔다고 했으니 한분은 칭찬을 했고 한 분은 비방을 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가. 덕산스님이 불조를 칭찬한 것이냐 비방한 것이냐. 오늘 결제대중은 한번 판단해 볼지니라.

대중이 말이 없자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위 두 선사는 덕산을 그렇게 평했지만 금일 산승은 그렇지 않노라.

퇴비상감호(堆肥上甘瓜) 천강류백월(千江流白月)
의천수골로(衣穿瘦骨露) 옥파간성면(屋破看星眼)

퇴비 위에 단 참외요
천강에 밝은 달이로다
떨어진 옷에 살이 야위니 뼈만 드러나고
집을 파하니 누워서 별을 보고 잠자도다.

과거에 어떤 수좌 둘이서 설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설봉스님이 수좌 둘과 마주쳐서 묻기를 “무엇인고?” 그러니까 수좌 스님 둘이 다시 설봉스님에게 “무엇인고?”하고 되물었습니다. 설봉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수좌 둘이 암두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 암두 스님이 묻기를 “어디에서 왔느냐?” 수좌가 대답하기를 “설봉스님을 친견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설봉이 무어라고 하던고?” “첫마디에 ‘무엇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인고?’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설봉스님이 무어라고 하던고?”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라고 말하니 암두 스님 말씀이 “아뿔싸, 그 설봉이 말후구(末後句)를 몰랐구나. 말후구를 알았다면 천하인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였을 것을.” 말후구를 이르지 못했다하니 수좌 둘이 다시 묻기를 “말후구가 무엇입니까?” 암두 스님이 “그래, 진작에 묻지 않고. 내가 말후구를 말하여 주겠노라. 말후구란 동조생(同條生)이나 부동사(不同死)라 한가지로 낳지만 한가지로 죽지는 않느니라.”라고 말하고 “다못 말후구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상방이라는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다. 암두스님은 ‘한가지로 나고 한가지로 죽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나는 ‘한가지로 나고 한가지로 죽는다.’고 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선사의 말이 서로 다르니 어떻게 판별해야 옳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판별할 수 있으면 분명한 안목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는 이 일을 해 마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하였지만 말후구를 제대로 이르지 못하였도다.

어떤 것이 말후구인고?

막언불법무다자(莫言佛法無多子)
불시고심인부지(不是苦心人不知)

불법이 많다고 말하지 마라.
이 괴로운 마음이 아니면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할,

주장자를 세 번 친후에 하좌하시다.

세계불교 법왕청 초 대 법 왕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존자의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붕 존자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 다 음 ═══

◆ 일시: 불기 2551(2007)년 6월 23일 (음 5.9)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의령 봉황산 일붕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서울총무원 : 전화 (02) 998-8161,2 전송 (02) 998-8384
2)의령 일붕사 : 전화 (055) 572-7777
3)문도회 : 전화 (054)633-1138
4)각교구종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홈페이지 : http://ilbung.org

◎증 명 : 붕해 대종사, 무찰대종사, 혜륭대종사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금봉(장로원장) 도기(문도회장), 명종(장로부의장), 청송, 원각, 원경, 송은, 수암등 장로위원 ,동봉, 혜천 무공,법운, 원광, 한화란(금강선원총재),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붕삼장대학원장),
◎지도위원장 : 혜운(일붕사 주지))
◎지 도 위 원 : 이무성,김진궐, 김덕수, 송월성, 박혜강, 장삼준,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봉 행 위 원 장 : 지공(총무원장)
◎봉행부위원장 : 경원(종회부의장) 법광(전국비구니회 회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추 진 위 원 장 : 화엄(중앙종회의장)
◎추진부위원장 : 해동(선거관리위원장) 도안(종회사무처장) 최혜숙(수도사회장) 권기태(일붕사 반야회장) 정금조(일붕사 지장회장) 배맹자(일붕사 약사회장)
◎기 획 위 원 장 : 용암(호계원장)
◎집 행 위 원 장 : 원각(교육원장)
◎진 행 위 원 장 : 법성(감사원장)
◎동 원 위 원 장 : 정수(포교원장)
◎경 호 위 원 장 : 정철(세계평화불교연맹이사장)
◎각교구동원위원장 : 응천(서울교구)/대우(부산교구)/석담(대구교구)/유정(인천교구)/용주(대전교구)/도현(울산교구)/광은(경기남부)/도혜(경기북부)/보해(강원동부)/동청(강원서부)/정수(경남교구)/해동(경북교구)/혜성(전남교구)/석성(전북교구)/영명(충남교구)/경운(제주교구)/충북교구(총무원직할)
◎분 과 위 원 장 : 총무분과 - 유정(총무부장대행)/의전분과 - 지언(교무부장)/ 섭외분과 - 법해 (교육부장)/경호분과 - 법령(규정부장) 봉사분과 - 영우(사회국장)

주최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후원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세계평화불교연맹, 전국 일붕문도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비구니회 ,현대불교신문사